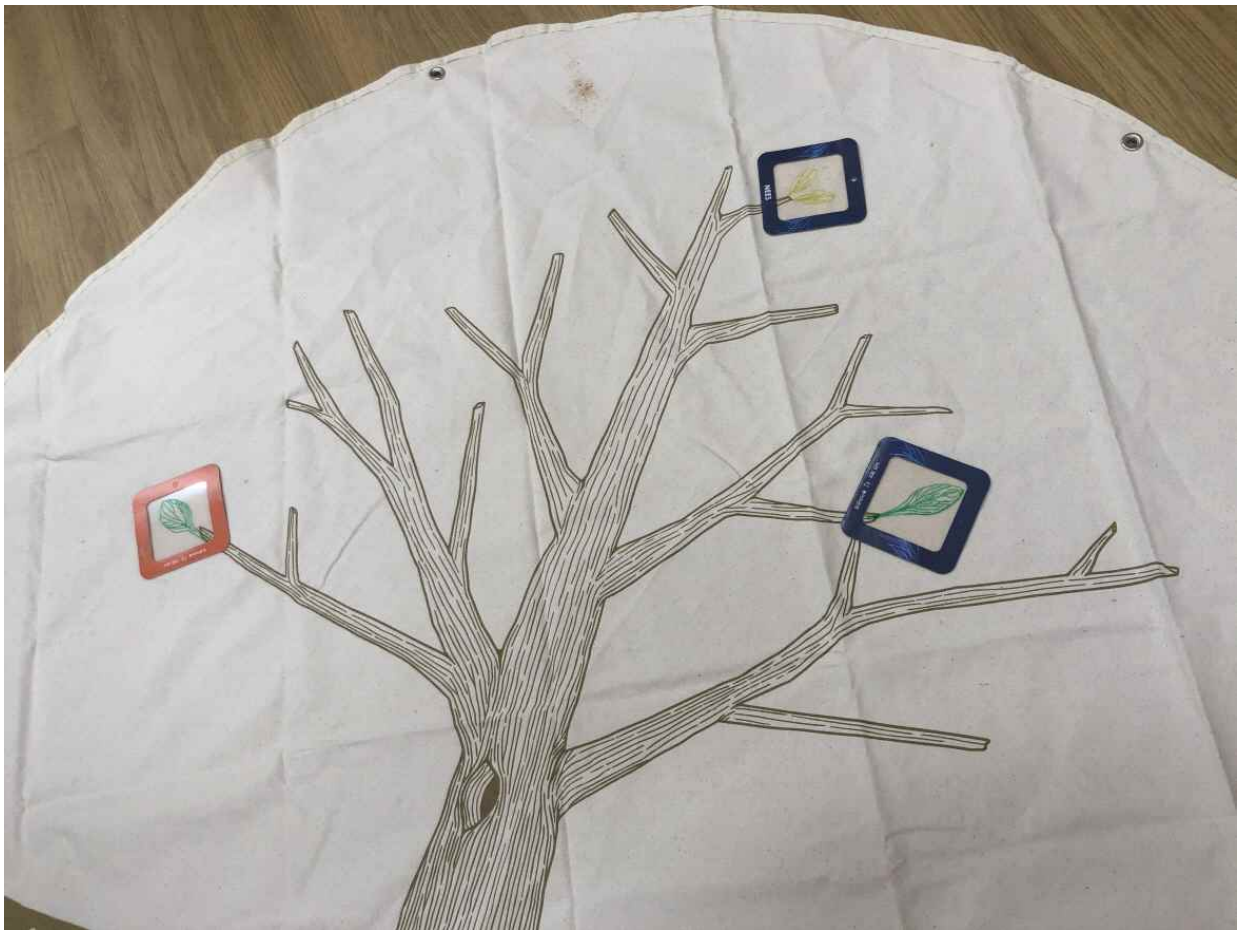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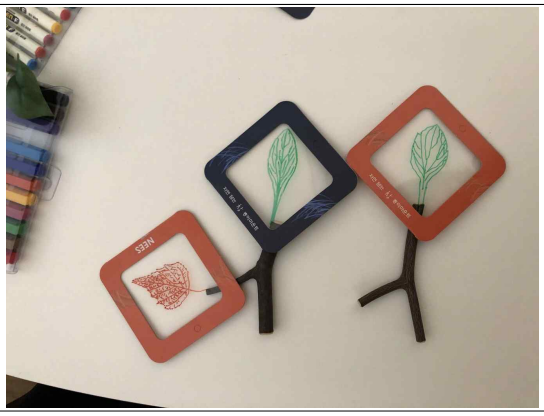
프로그램 제목 : 에너지 나무

개발자	박현숙(설악산생태탐방원)_응용
밖으로 나가 자연을 접하며 각자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고르고, 여러 가지 모양의 나뭇잎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자연의 나뭇잎들처럼 다양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 한다.	
교보재명	에너지나무
운영대상	성인 및 학생
프로그램 활용방안	백두대간 생태캠프, 여름방학 캠프 등 학생 프로그램 대상
운영시기	사계절
준비물	둥근보자기, OHP필름, 종이 프레임, 싸인펜 등
소요시간	60분



나무에 에너지 불어넣기

	
진행사진1	진행사진2

운영방법

1. 밖으로 나가 자유롭게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주워온다.
2. 네임펜으로 OHP필름에 나뭇잎을 그린다.
3. 나뭇잎을 그린 OHP필름을 불빛에 비춰 나뭇잎을 관찰한다.
4. 나뭇가지에 OHP필름을 장식해 본다.
5. 둥근 보자기에 그려져 있는 나무 그림에 각자 그린 나뭇잎 OHP필름으로 장식하며 나무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향후방향

-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며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 야외에서 찾아오는 나뭇잎의 종류와 해당 나무의 식생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을 진행한다.

참고내용

* 계절별로 구할 수 있는 잎의 종류와 색, 식생의 변화 등을 서로 이야기 한다.

주의사항

- 나뭇잎을 따지 않도록 주의시킨다.(떨어져 있는 나뭇잎 이용)
-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직접 야외로 나가 진행 할 수 있다.